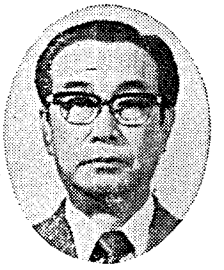
卷頭言



理事長 李 養 浩

본 협회가 火災없는 福祉社會建設을 위해 힘써온지 벌써 4년이나 흘렀읍니다. 그 동안 本協會의 全任·職員은 우리의 貴重한 人命과 애써 모은 財産을 앗아가는 火災를 未然에 防止해야할 使命感 속에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마음한뜻으로 뛰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.

지금 우리나라는 維新總和를 바탕으로 한 庶政刷新作業과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비약적인 국가경제의 伸張을 이룩하고 있읍니다.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땀흘려 눌라우리만치 高度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도 火災로 인한 피해가 적지않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.

피땀흘려 建設해 놓은 産業施設은 물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高貴한 人命마저 앗아가는 火災를 豫防한다는 것은 現國家의 安保的 次元에서 보아도 극히 重要한 任務임은 再言을 要하지 않습니다. 잠깐의 방심이나 不注意가 크고 작은 火災를 유발했고 특히 이리시의 폭파사건등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점철된 가운데 또 한해를 보내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우리는 여기에서 7년전 年初에 大統領閣下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여야 하겠읍니다.

『미리 點檢을 해서 어느 곳에 缺陷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是正해야 되겠느냐는 것에 대한 對策을 하나하나 마련해 놓는다면 火災란 發生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發生率 역시 줄어들 것이고 또 만일 不幸히도 그러한 對策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火災가 發生한다면 그만큼 미리대책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最少限度로 被害를 줄일 수 있을 것』이라고 하신말씀을……

이는 다시 말한다면 事前 豫防對策을 통한 『불조심의 生活化』만이 거듭되는 火災를 豫防하는 길이요 또한 우리의 生活을 보다 安全하고 福되게 해 줄 수 있는 知慧임을 가르쳐 주신 하나의 敎訓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이러한 점에서 消防關係人은 물론 우리 一般 國民들은 『불조심의 生活化』라는 의식과 使命感을 간직하고 새로운 豫防戰術과 戰略의 開發을 더욱 다구쳐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.

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인 火災없는 새마을건설 災害없는 福祉國家建設을 위해 우리는 勤勉·自助·協同의 새마을정신을 信念으로 火災豫防을 통한 영광된 民族의 大行進에 더욱 굳건한 자세로 參與하여야 하겠읍니다.

國民 여러분!

우리 다 함께 슬기와 지혜를 다하여 한마음으로 뭉쳐 보람찬 祖國建設을 위해 더욱 團結하고 분발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기 이 책자가 火災를 豫防코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보탬이 되어주신다면 크게 보람을 느끼겠읍니다.